

#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김정훈\*

## 1. 들어가는 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칠십인 역 헬라이어 구약 성경 (Septuagint; LXX), 곧 칠십인 경<sup>1)</sup>은 주전 3세기 무렵 오경을 시작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주전 2세기 후반에 쓰여 유대이즘의 변증을 위해 덧칠하고 덧들여진 이 문서는 실제로 칠십인 경의 기원보다는 “개정요구”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헬라이어 구약 성경을 지켜내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서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이어 구약 성경은 “훌륭하고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었기 때문에”(ἐπεὶ καλῶς καὶ ὀσίως διηρμήνευται καὶ κατὰ πᾶν ἠκριβωμένως, § 310),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환대받았고, 이 변

---

\* 부산 장신 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우리말에서 헬리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일컫는 전통은 두 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원래 헬리어로 쓰인 몇몇 책들을 빼면, 대체로 번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칠십인 역”(七十人 譯)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다름 아닌 “성경”의 번역으로 번역자나 번역 공동체에게 단순한 번역 문학이 아니라 경전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칠십인 경”(七十人 經)이라고도 한다. 글쓴이 개인적으로는 “칠십인 경”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해서 이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칠십인 역 헬라이어 구약 성경”이라 하는 것이 원래 전통에 가장 가깝다.

역에 그 어떤 “변경”(διασκευή, § 310)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문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헬라어 구약 성경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전 2세기에 있었을 법한 칠십인 경 개정의 요구를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수많은 칠십인 경의 필사본들은 다양한 이형들(異文, variants)을 보이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보면 하나의 본문 형태가 아니라 여러 본문 형태가 더불어 존재한 적이 있었을 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무엘-열왕기서의 경우에는 주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이나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에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본문 형태가 번갈아 나온다.<sup>2)</sup>

지난 두 세기 동안 학자들은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에 있는 서로 다른 본문 형태들의 정체와 유래와 가치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연구들과 논쟁들만 있을 뿐, 본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글쓴이가 수행하였던 사무엘-열왕기서에 대한 좀 더 넓은 범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sup>3)</sup> 사무엘-열왕기서의 대표적인 두 본문 형태, 곧 카이게 개정본과 안디옥 본문의 특징들과 역사를 간략히 살펴봐 칠십인 경의 본문의 개정 양상과 결과, 또 본문비평상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칠십인

2) 본문 2.2.를 보라.

3) 먼저 글쓴이가 독일의 부퍼탈 신학대학교(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에 제출했던 박사 학위 논문, Kim, Jong-Hoo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s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에서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가 된다. 이 논문에서 글쓴이는 사무엘하 15:1-19:9의 본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네 장의 본문에서 약 1,200개 이상의 이형들을 다루었다. 이 외에 Kim, Jong-Hoon, “Zur Textgeschichte von Sam-Kön anhand 2.Sam 15,1-19,9,” M. Karrer and W. Kraus, eds.,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und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353-368도 보라. 그리고 글쓴이가 한림성서 연구소에서 집필한 김정훈, 『칠십인 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 입문』, 유대·그리스도교 고전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을 참조하라.

경의 이해와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드러날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한다. 첫째, 원-칠십인 경의 존재이다. 칠십인 경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입장들을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sup>4)</sup> 일찍이 라가르드가 주창한 “원-칠십인 경 가설”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여, 모든 헬라이어 구약 성경의 본문 형태들은 하나의 원본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이 헬라이어로 번역되고 개정되던 때인 헬라/초기 유대이즘 시대에는 히브리어 본문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유동적이었다는 사실이다.<sup>5)</sup>

## 2. 카이게 개정본

### 2.1. 원-칠십인 경 개정 요구

주전 2세기 후반 무렵에 들어서자 원-칠십인 경의 번역은 그 모습이

- 
- 4) 칠십인 경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개론서들을 참조하라. H. B. Swet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1900, 1914<sup>2</sup>; repr. New York: Handrickson Publishers, 1989), 1-28; S. Jellicoe,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1968; repr. Wino Lake: Eisenbrauns, 1993), 29-73; N. Fernández Marcos, *The septuagint in Context: Introduction to the Greek Version of the Bible*, W.G.E. Watson, trans. (Leiden: Brill, 2000), 35-66; 캐런 줍스, 모세 실바,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41-52; J. M. Dines, *The Septuagint* (London: T&T Clark, 2004), 1-3, 27-62 등.
- 5) 서로 독자적으로 전승된 다양한 히브리어 본문의 전통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마소라 본문과는 또 다른 형태의 본문을 보여주는 쿨란 동굴과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성경 본문들이다. 즉, 이 시기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다양한 본문의 형태들이 각각 독자적인 전승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동적인 상태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마소라 본문과 쿨란 본문, 칠십인 경의 번역 대본, 칠십인 경의 다양한 본문 형태들 사이의 이형(異文; variants)이 생겨났다.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곧바로 개정 필요성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초기 유대이즘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곧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 해석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자음 본문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였고, 이는 칠십인 경의 헬라어 번역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sup>6)</sup> 이는 힐렐의 일곱 규칙과 이를 더 구체화한 이쉬마엘의 열세 규칙, 엘리에제르(벤 요세 하갈릴리)의 서른 두 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기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 규칙들이 칠십인 경의 본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sup>7)</sup>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어 번역을 보는 입장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곧 그리스어의 번역이더라도 히브리어 본문의 요소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그리스어만 보더라도 히브리어 본문을 쉽사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칠십인 경은 코이네 헬라어로 옮길 때 의미 전달을 주된 번역 원칙으로 삼았을 텐데,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과 프톨레미 왕실 도서관의 공통된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원-칠십인 경의 번역이 몹시 거슬렸을 것이다. 주전 2세기 중반을 넘어서자 이런 움직임은 본격화되었고, 급기야 알렉산드리아 원-칠십인 경을 고수하던 이들은 첫머리에 언급한 대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로 원-칠십인 경의 권위를 변호하기에

6)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 해석과 칠십인 경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S. Kreuzer,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Wie kam es zur Vorherrschaft des Masoretischen Textes?" A. Vonach and G. Fischer, 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Festschrift für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17-129와 S. Kreuzer, "From 'Old Greek' to the recensions. Who and what caused the change of the Hebrew reference-text of the Septuagint?," W. Kraus and R.G. Wooden, eds., *Septuagint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SBLSCS 53 (Atlanta: SBL, 2006), 225-237을 보라.

7)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쿤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딸, 2008)을 보라.

이른다. 그래도 개정 요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원-칠십인 경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니, 유대이즘에서 일어난 이 개정이 이른바 ‘카이게 개정본’이다. 랍비 엘리에제르가 중요하게 여긴 히브리어 낱말들(아프, 감, 에트 등)의 일관된 번역을 ‘카이게 개정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카이게 개정본’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책은 다름 아닌 사무엘-열왕기이다.

## 2.2. 카이게 개정본의 연구사

“카이게 개정본”의 연구는 테커레이에게서 시작한다. 테커레이의 연구는<sup>8)</sup> 칠십인 경의 이중 번역 가설 가운데 있다. 테커레이에 따르면, 바티칸 사본의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 본문은 문체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①  $\alpha$ : 삼상;  $\beta\beta$ : 삼하 1:1-11:1;  $\gamma\gamma$ : 왕상 2:12-21:43 ②  $\beta\gamma$ : 삼하 11:2-왕상 2:11;  $\gamma\delta$ : 왕상 22:1-왕하 25:30).<sup>9)</sup>

테커레이는 사무엘-열왕기를 두 번에 걸쳐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주장하였다. 곧 처음에는  $\alpha$ ,  $\beta\beta$ ,  $\gamma\gamma$  부분만 번역되었고, 주후 2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번역에서 빠졌던  $\beta\delta$ 와  $\gamma\delta$ 의 번역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커레이는 오늘날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본문 형태는

8) H. St. J. Thackeray, “The Greek translators of the four books of Kings,” *JTS* 8 (1907), 262-266; H. St. J.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 (The Schweich Lectures 1920; London: Oxford Univ. Press, 1921), 16-28, 114-115.

9) 문헌에 따라  $\beta\gamma$ 가 사무엘하 11:2에서 시작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더러 사무엘하 10:1에서 시작한다는 주장도 볼 수 있다. 테커레이와 아래에서 논의될 바르텔레미는 사무엘하 11:2에서  $\beta\gamma$ 가 시작된다고 보았지만, 쉥켈은 사무엘하 10장에서도  $\beta\gamma$ 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발견되기 때문에  $\beta\gamma$ 가 10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J. D. Shenkel, *Chronology and Resensional Development in the Greek Text of King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을 보라.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테커레이나 바르텔레미의 주장대로  $\beta\gamma$ 의 시작을 사무엘하 11:2로 보고 있다.

후대에 덧붙여 번역된 부분이 함께 섞여있다고 보았다. 테커레이는 이처럼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과 그 두 부분의 특징을 밝혀내, 그 이후 이어질 이 두 가지 문체의 정체 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바르텔레미는 오늘날 흔히 쓰이는 “카이게 개정본”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다. 비록 바르텔레미 자신은 “카이게 개정본(recension)”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겨난 이 용어는 사실상 바르텔레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sup>10)</sup>

바르텔레미가 테커레이의 발견을 바탕으로 카이게 개정본의 이론을 발전시킨 계기는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열두 소예언서 두루마리 필사본<sup>11)</sup> 발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두인이 이 두루마리 필사본을 예루살렘 성서 대학(École Biblique Française in Jordanian)에 판매한 이듬해에 바르텔레미는 이미 이 필사본을 편집하여 발표했다.<sup>12)</sup> 그로부터 십 년 뒤인 1963년에는 “Les Devanciers d'Aquila”(아퀼라의 선행자)라는 책을 펴내 이 두루마리의 본문 형태에서 발전한 “카이게 개정본”의 이론을 펼쳤다.<sup>13)</sup> 열두 소예언서 두루마리 필사본을 주전 1세기-후주 1세기 초반으로 미루어 짐작한 그는 이 본문의 형태가 다름 아닌 카이게 개정본이라고 주장했다.<sup>14)</sup> 그는 이 본문 형태가 테커레이가 사무엘-열

10) 참조, J. W. Wevers, “Barthélemy and Proto-Septuagint Studies,” *BIOSCS* 21 (1988), 23-34.

11) 후에 이 두루마리는 8HevXIIgr이라는 기호로 지칭되어 공식 출간되었다. E. Tov and R.A. Kraft, eds.,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ḥal Hever(8HevXIIgr)*, DJD 8 (Oxford: Clarendon Press, 1990; reprinted with corrections 1995).

12) D. Barthélemy, “Redécouverte d'un Chaînon Manquant de L'Histoire de la Septante,” *RB* 60 (1953), 18-29.

13) D.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14)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202: “Les concordances précédentes sont cependant assez claires pour établir que notre recension, manifestement antérieure à Aquila, se rattache au groupe kaige dont elle confirme la cohérence.”

왕기에서 후대의 첨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본문 형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히브리어  $\alpha$ (과 당연히  $\alpha\eta$ )의 기계적인 번역어로 쓰인 헬라이어 불변화사  $\kappa\alpha\lambda\gamma\epsilon$ 를 따서 이 형태를 “groupe kaige”라고 일컬었다. 그는 특히 사무엘-열왕기의  $\beta\gamma$ -와  $\gamma\delta$ -부분을 가장 중요한 카이게-그룹의 본문 영역이라고 보았다.<sup>15)</sup> 바르텔레미는 이미 테커레이가 대부분 관찰한 바 있는 이 카이게-그룹 본문 형태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필사본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열거하여 설명한다.<sup>16)</sup> 그러니 바르텔레미는 테커레이의 후대 이차 번역 이론을 무너뜨린 셈이다. 곧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에 관한 바르텔레미의 연구는 카이게 개정본은 주후 2세기가 아니라 적어도 주전 1세기에는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혀냈다.

바르텔레미를 뒤이어 많은 학자들이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sup>17)</sup> 근본적으로 바르텔레미가 관찰한 깊이를 넘어서

15)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31-47.

16) H. St. J.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 114-115 비교,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48-80 참조. ① “각자”의 의미로 쓰인  $\alpha\eta$ 의 번역으로 의미에 맞는 ἕκαστος 대신 ἀνὴρ, ②  $\alpha\eta$ 의 번역으로 ἀπό이나 ἀπάνω 대신 ἐπάνωθεν(ἀπάνωθεν), ③  $\alpha\eta$ 를 무리하게 어근에 따라  $\sigma\tau\eta\lambda\acute{o}\omega$ 로 번역함, ④ 빨나팔과 금관악기의 구분- $\alpha\eta$ 는  $\kappa\epsilon\rho\alpha\tau\acute{\iota}\nu\eta$ 로 번역하고,  $\alpha\eta$ 는  $\sigma\acute{\alpha}\lambda\pi\upsilon\chi$ 로 번역함, ⑤ 역사적 현재 시제가 쓰이지 않음, ⑥ 문맥의 시제와 상관없이  $\alpha\eta$ 를  $\kappa\alpha\iota$  ἔστι로 번역함, ⑦ 일인칭 대명사의 짧은 형태  $\alpha\eta$ 와 구분되는 긴 형태  $\alpha\eta$ 는 정동사 앞에서까지도 무조건 ἐγώ εἰμι로 번역함, ⑧  $\alpha\eta$ 의 번역으로 εἰς ἀπαντήν.

17) 카이게 개정본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 Katz, “Frühe hebraisierende Rezensionen der LXX,” *ZAW* 69 (1957), 77-84; K. G. O’Connell, “Greek Version(Minor),” *IDBS* (1962), 377-381; M. Smith, “Another Criterion for the kai,ge Recension,” *Biblica* 48 (1967), 443-445; J.A. Grindel,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Kaige Recension:  $\alpha\eta/\nu\iota\kappa\omicron\varsigma$ ,” *CBQ* 31 (1969), 499-513; S. Jellicoe, “Some Reflections on the Kaige-Recension,” *VT* 23 (1973), 362-365; H. Avalos, “Deuro/deute and the Imperatives of  $\alpha\eta$ -New Criteria for the ‘Kaige’ Recension of Reigns,” *Estudios Bíblicos* 47 (1989), 165-176 등.

지는 않는다. 다만, 바르텔레미가 사무엘-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을 논한데 비해, 그 이후 다른 책에서도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을 찾고 범위를 넓혀 나갔을 뿐이다(룻기, 판관기의 B-본문, 2에스 드라스기, 시편, 코헬렛, 다니엘 θ-본문 등).<sup>18)</sup>

### 2.3.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번역어인 헬라이어에서도 히브리어 대본의 낱말들을 알아볼 수 있게 가능한 한 원어 중심의 직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카이게 개정본의 번역 원칙이 헬라 시대의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 해석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래에서 우리는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와 글쓴이가 제안하는 또 다른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 2.3.1. ⲙⲟⲩⲁⲓ의 기계적인 번역어로 쓰인 καίγε

카이게 개정본의 이 번역 기법에 대한 보기로 사무엘하 15:24을 들어본다. 아래에서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으로는 이를 주로 반영한 바 티칸 사본의 본문을 중심으로 편집된 랄프스의 편집 본문을 쓰고, 이와 비교되는 원-칠십인 경의 본문은 안디옥 본문<sup>19)</sup>을 쓴다<표 1>.

18) 개별 책들에 관한 연구는 C. Dogniez, *Bibliography of the Septuagint. Bibliographie de la Septante <1970-1993>*, VTS 60 (Leiden: Brill, 1995), 107-109와 최근의 글은 R.A. Kraft, "Reassessing the Impact of Barthélemy's Devanciers, Forty Years Later," *BIOCS* 37 (2004), 23-28의 참고문헌 목록을 보라.

19) 안디옥 본문은 N. Fernández Marcos and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II 1-2 Reyes*, TECC 50, 53 (Madrid: CSIC 1989, 1992)의 편집 본문을 쓴다.

<표 1> 사무엘하 15:24 본문 비교

| 마소라 본문  | 카이게 개정본  | 안디옥 본문  |
|---|--|---|
| וַהֲנֵה נִם-צִדְדִיק<br>וְכָל-הַלְוִיִּם אִתּוֹ   | καὶ ἰδοὺ <b>καίγε</b> Σαδωκ<br>καὶ πάντες οἱ Λεῦται μετ' αὐτοῦ | καὶ ἰδοὺ(-) Σαδδουκ<br>καὶ πάντες οἱ Λεῦται μετ'<br>αὐτοῦ   |
| נְשָׂאִים אֶת-אֲרוֹן<br>בְּרִית הַאֱלֹהִים<br>(-) | αἴροντες τὴν κιβωτὸν<br>διαθήκης κυρίου<br>ἀπὸ Βαιθαρ          | αἴροντες τὴν κιβωτὸν<br>τῆς διαθήκης τοῦ Θεοῦ<br>ἀπὸ Βαιθαρ |

마소라 본문에는 “נִם”이 있고, 카이게 개정본은 그것을 “καίγε”로 옮겼다. 반면 이 경우 원-칠십인 경의 번역으로 여겨지는 안디옥 본문은 “καί”를 되풀이하여 히브리어의 “נִם”이 하는 역할, “~도 또한”이라는 뜻을 가지기에 굳이 이 낱말을 번역하지 않았다.

사무엘-열왕기서에서 이러한 현상은 히브리어 “נִם(נִמִּי)”이 칠십인 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다.<sup>20)</sup> 칠십인 경 본문은 βγ-와 γδ-부분에서 대문자 사본들의 본문을 편집한 랄프스의 소비평 편집본을 사용했다. <표 2>에서 회색으로 덧칠한 구절들은 카이게 부분이다.

“καίγε”는 “נִם”의 번역어로는 βγ-와 γδ-부분에서만 쓰이고 “נִמִּי”의 번역으로도 두 번(삼하 2:6, 7)의 예외를 빼면 카이게 부분에서만 쓰인다. 이로써 원-칠십인 경의 번역자는 “נִם(נִמִּי)”의 번역어로 “καίγε”를 거의 쓰지 않았으며 카이게 개정자에게는 배타적인 기계적 번역어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2.3.2. “אני”(ἐγώ)와 구분되는 “אניכי”의 번역어로 쓰인 “ἐγώ εἰμι”

마소라 본문에서 “אני”와 “אניכי”가 함께 나오는 사무엘하 20:17의 보기를 들어 보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으로는

20)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114-115과 자세한 논의로는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31-41을 참조하라.

랄프스의 편집 본문을 들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원-칠십인 경의 본문으로는 안디옥 본문을 대조한다<표 3>.

<표 2> 칠십인 경 사무엘 열왕기의  $\aleph$ 과  $\beta$ 번역

|                                   | $\aleph$  | $\beta$   |
|-----------------------------------|---|---|
| $\kappa\alpha\iota$               | 삼상 1:6; 2:15, 261; 8:8, 20; 10:11, 12; 12:14 <sup>1</sup> , 16, 23, 25(×2); 14:15, 22; 16:9; 17:36(×2); 19:21(×2), 23, 24; 20:27(×2); 24:12; 25:16(×2), 43; 26:25 <sup>1</sup> ; 28,62, 3, 15 <sup>1</sup> , 2, 20; 31:5; 삼하 3:17 <sup>2</sup> ; 5:2(×2); 8:11; 12:13, 27; 15:19 <sup>1</sup> ; 왕상 3:18; 4:15; 7:20; 13:18; 왕하 2:3; | 삼상 1:28; 2:26 <sup>2</sup> ; 4:17(×2); 10:26; 12:14 <sup>2</sup> ; 13:4; 14:21; 15:29; 19:22; 23:17; 26:25 <sup>2</sup> ; 28:23; 삼하 1:4(×2), 11; 2:2; 15:19 <sup>2</sup> ; 왕상 1:46, 47; 3:13(×3); 8:41; 1011; 14:24; 15:13; 16:7, 16; 18:35; 21:19 <sup>1</sup> , 23; |
| $\kappa\alpha\iota\gamma\epsilon$ | 삼하 11:12, 17, 21; 12:14; 14:7; 15:20(-); 24; 16:23(×2); 17:5(×2), 10, 12, 16; 18:2, 22, 26; 19:31; 왕하 2:5; 9:27; 17:19, 41; 21:11; 23:27;   | 삼하 2:6, 7; 11:24; 13:36; 14:6(... $\beta$ ); 18:27(... $\aleph$ ); 19:41, 44; 20:26; 21:20; 왕상 1:6, 48; 2:5; 22:22; 왕하 8:1; 13:6; 16:3; 21:16, 19; 23:15(×2), 24; 24:4;   |
| al.                               | 삼상 16:8(ούδέ); 19:20(-), 24 <sup>1</sup> , <sup>2</sup> (-); 21:91(-); 22:17 <sup>1</sup> (εί ἀληθῶς); 25:13(-); 28:61(-), 15 <sup>3</sup> (-), 19(×2)(-), 22(-); 31:6(-); 삼하 3:17 <sup>1</sup> (-), 19(×2)(-); 4:2; 7:19(-); 17:13(μηδὲ); 왕상 3:26(×2)(μητε); 14:15(-), 23(-); 17:20(-); 21:19 <sup>2</sup> (-);                    | 삼상 18:5(-); 왕상 7:31(-)  |

<표 3> 사무엘하 20:17 본문 비교

| 마소라 본문   | 카이게 개정본   | 안디옥 본문  |
|--|---|---|
| וַיִּקְרַב אֵלָיָהּ<br>וְהָאִמֶּר הָאִשָּׁה<br>הָאֵתָהּ יוֹאָב<br>וַיֹּאמֶר אָנֹכִי<br>וְהָאִמֶּר לוֹ<br>שָׁמַע<br>דְּבַרֵי אִמְתָּךְ<br>וַיֹּאמֶר<br>שָׁמַע אֲנִיכִי: | καὶ προσήγγισεν πρὸς αὐτήν<br>καὶ εἶπεν ἡ γυνὴ<br>εἰ σὺ εἶ Ἰωαβ<br>ὁ δὲ εἶπεν ἔγώ<br>εἶπεν δὲ αὐτῷ<br>ἄκουσον<br>τοὺς λόγους τῆς δούλης σου<br>καὶ εἶπεν Ἰωαβ<br>ἀκούω ἔγώ εἰμι | καὶ ἤγγισεν Ἰωαβ πρὸς αὐτήν<br>καὶ εἶπεν ἡ γυνὴ<br>εἰ σὺ εἶ Ἰωαβ<br>ὁ δὲ εἶπεν ἔγώ<br>εἶπεν<br>ἄκουε δὴ<br>τοὺς λόγους τῆς δούλης σου<br>καὶ εἶπεν<br>ἀκούω ἔγώ<br>λέγε |

원-칠십인 경의 번역을 반영하는 안디옥 본문은 “אני”와 “אניני”를 구분하지 않고 “ἐγώ”로 번역한 반면, 카이게 개정본은 이 두 낱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אני”는 “ἐγώ”로, “אניני”는 “ἐγώ εἰμι”로 옮겼다. 특히 여기에서 카이게 개정본의 “ἀκούω ἐγώ εἰμι”는 정동사가 있는 히브리어의 동사 문장을 번역한 것으로 헬라이어 본문 역시 정동사와 더불어 쓰였다. 이는 카이게 개정본의 개정 원칙을 모르는 헬라이어권의 독자가 읽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다. 카이게 개정본은 이처럼 헬라이어 어법마저 무시하면서 히브리어 대본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분명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당시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표 4>는 사무엘-열왕기서 전체에서 “אניני”를 조사한 것이다. 본문은 카이게 개정본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대문자 사본에 따라 편집한 랄프스의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אניני”가 정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 히브리어의 명사 문장과 동사 문장을 구분하였다. <표 4>에서 덧칠한 구절들은 카이게 부분이다.

<표 4>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의 אניני 번역

| אניני    | 명사 문장   | 동사 문장   |
|----------|---|---|
| ἐγώ εἰμι | 삼상 1:15; 4:16; 9:19, 21; 17:8, 43; 22:22; 30:13; 삼하 1:8, 13; 2:20; 3:8; 19:36; 20:19; 왕상 19:4 | 삼하 11:5; 12:7; 13:28; 15:28; 18:12; 20:17; 24:12, 17; 왕상 2:2; 왕하 4:13   |
| ἐγώ      | 삼상 1:8  | 삼상 1:28; 2:23, 24; 3:11; 10:18; 15:14; 20:36; 21:3; 삼하 1:16; 2:6; 3:13; 7:2; 14:18; 왕상 2:16, 18, 20; 왕하 22:19 |
| al.      | 삼상 18:18(εἰμι ἐγώ); 삼하 3:28(εἰμι ἐγώ); 7:18(εἰμι ἐγώ)   | 삼상 10:8(-); 12:23(ἐμοί); 24:5(-)  |

먼저 “אניני”에 대한 원-칠십인 경의 번역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명사 문장에서는 주로 “ἐγώ εἰμι”로 옮기고, 동사 문장에서는 헬라이어

어법에 맞게 “ἐγώ”로 옮기는 것이다. 그에 비해 카이게 개정본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אני”를 문맥이나 헬라이어 어법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ἐγώ εἰμι”로 옮기고 있다.

### 2.3.3. “אנ”(nota accusativi)의 번역어로 쓰인 정관사

히브리어 성경의 자음 본문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했던 헬라 시대의 초기 유대이즘 성경 해석에서는 정관사는 물론 목적격을 이끄는 “אנ” (에트, nota accusativi)에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sup>21)</sup> 카이게 개정본 역시 이 원칙에 맞추어 이 두 요소를 기계적으로 헬라이어 정관사로 옮긴다.<sup>22)</sup> 이 말을 달리 하자면, 히브리어 대본에 정관사나 대격 표지가 없을 경우 설사 헬라이어의 어법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생략한다는 말도 된다. 이런 예들을 본문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두 구절의 보기를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사무엘하 15:6을 보자. 본문 대조의 기준은 앞서 한 것과 같다<표 5>.

원-칠십인 경이나 안디옥 본문의 경우 “[모든]<sup>23)</sup>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는 구절에서 그리스 어법에 자연스럽게 정관사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카이게 개정본은 히브리어 본문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정관사 없이 번역하였다.

21) 가령 엘리에제르 라삐의 서른두 규칙 가운데 첫째는 ‘립부이’(증가, 포함)로 “성경에서 ‘아프’, ‘감’(역시), 정관사, 목적격을 나타내는 ‘에트’가 본래의 표현 외에도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스탬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81).

22) J. H.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S. Kreuzer, “Die Septuaginta im Kontext alexandrinischer Kultur und Bildung,” H.-J. Fabry and D. Böhler, 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Bd. 3: Studien zur Theologie, Anthropologie, Ekklesiologie, Eschatologie und Liturgie der Griechischen Bibel*, BWANT 174 (Stuttgart: Kohlhammer, 2007), 28-56 등 참조.

23) 여기 안디옥 본문의 “모든”은 마소라 본문이나 카이게 개정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전제한다. כּל־אִשְׂרָאֵל.

<표 5> 사무엘하 16:6 본문 비교

| 마소라 본문   | 카이게 개정본   | 안디옥 본문  |
|--|---|---|
| וַיַּעַשׂ אֲבִשָׁלוֹם<br>כְּדַבַּר הַיְהוָה<br>לְכָל־יִשְׂרָאֵל<br>אֲשֶׁר־יָבֹאוּ לְמִשְׁפָּט<br>אֶל־הַמֶּלֶךְ<br>וַיִּנְגַב׃ אֲבִשָׁלוֹם<br>אֶת־לֵב<br>אֲנָשֵׁי יִשְׂרָאֵל׃ | καὶ ἐποίησεν Αβεσσαλωμ<br>κατὰ τὸ ῥῆμα τοῦτο<br>παντὶ Ἰσραηλ<br>τοῖς παραγκυμμένοις εἰς<br>κρίσιν<br>πρὸς τὸν βασιλέα<br>καὶ ἰδιοποιεῖτο<br>Αβεσσαλωμ<br>τὴν καρδίαν<br>ἀνδρῶν Ἰσραηλ | καὶ ἐποιεῖ Αβεσσαλωμ<br>κατὰ τὸ ῥῆμα τοῦτο<br>παντὶ Ἰσραηλ<br>τοῖς παραγκυμμένοις εἰς κρίσιν<br>πρὸς τὸν βασιλέα<br>καὶ ἰδιοποιεῖτο<br>Αβεσσαλωμ<br>τὰς καρδίας<br>παντῶν τῶν ἀνδρῶν τοῦ Ἰσραηλ |

다음으로 사무엘하 15:10을 예로 들어 보자<표 6>.

<표 6> 사무엘하 15:10 본문 비교

| 마소라 본문  | 카이게 개정본  | 안디옥 본문  |
|---|--|---|
| וַיִּשְׁלַח אֲבִשָׁלוֹם<br>מְרַגְלִים<br>בְּכָל־שְׁבִטֵי יִשְׂרָאֵל<br>לֵאמֹר<br>כִּשְׂמַעְכֶּם<br>אֶת־קוֹל הַשֹּׁפָר<br>וַאֲמַרְתֶּם<br>מֶלֶךְ אֲבִשָׁלוֹם<br>בְּחֶבְרוֹן׃ |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br>Αβεσσαλωμ<br>κατασκοπούς<br>ἐν πάσαις φυλαῖς<br>Ἰσραηλ<br>λέγων<br>ἐν τῷ ἀκοῦσαι ὑμᾶς<br>τὴν φωνὴν τῆς<br>κερατίνης<br>καὶ ἐρεῖτε<br>βεβασίλευκεν<br>βασιλεὺς <sup>g</sup><br>Αβεσσαλωμ<br>ἐν Χεβρων |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Αβεσσαλωμ<br>κατασκοπούς<br>ἐῖς πάσας τὰς φυλάς τοῦ<br>Ἰσραηλ<br>λέγων<br>ἐν τῷ ἀκοῦσαι ὑμᾶς<br>φωνὴν σάλπιγγος<br>καὶ ἐρεῖτε<br>βεβασίλευκεν Αβεσσαλωμ<br>ἐν Χεβρων |

ㄱ-ㄱ에서는 안디옥 본문과는 달리 카이게 개정본은 히브리어 본문

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관사 없이 번역하였다. 그런데 ㄴ-ㄴ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안디옥 본문(추측컨대, 원-칠십인 경)이 “나팔 소리”라는 뜻의 헬라이어의 관용적인 표현인 “φωνή σάλπιγγος”를<sup>24)</sup> 관사 없이 썼다. 그러나 카이게 개정본은 대격 표지와 연계형에 쓰이는 정관사를 헬라이어 정관사로 충실히 옮겼다. 이처럼 카이게 개정본은 초기 유대이즘의 성서 해석 원칙을 번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사무엘-열왕기서에 카이게 개정본이 무슨 이유에서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지(βγ와 γ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sup>25)</sup> 분명한 것은 카이게 개정본은 초기 유대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원-칠십인 경을 전반적으로 개정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24) 헬라이어에서는 이처럼 서로 연관되는 두 낱말이 함께 쓰일 때 정관사를 생략하곤 한다. 이에 관해서는 R. Kühner and 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I, Elementar- und Formlehre* (Hannover, 1890-1892); II, *Satzlehre* (Hannover: Hansche Buchhandlung, 1898/1904.), § 462, k)를 보라. 가령, βοήν σάλπιγγος ὀρμαίνει μειῶν 등.

25) 글쓴이는 사무엘-열왕기서의 대문자 사본에 이처럼 원-칠십인 경의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두루마리에서 코텍스로 넘어가는 단계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긴다. 즉, 두루마리의 필사본을 필사하여 코텍스로 묶었던 최초의 필사자가, 또는 그에게 전해진 두루마리가 이미 그렇게 두 본문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한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났는데, 글쓴이는 그 원인을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소 두루마리 경향에서 찾고 있다. 고전시대의 헬라이어나 이집트어 두루마리는 매우 길었던데 비해, 헬레니즘 시대에 문서 교역의 용이성을 위해 두루마리의 길이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짧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칠십인 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 소 두루마리 시대에 사무엘-열왕기의 구분도 소 두루마리 체계에 따라 지금과는 달리, αα(삼상 1-17), αβ(삼상 18-삼하 11:1), βγ(삼하 11:2-왕상 2:11), γγ(왕상 2:12-21:43), γδ(왕상 22:1-왕상 25:30)의 다섯 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원-칠십인 경과 카이게 개정본이 각각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전승되다가 두루마리에서 코텍스로 넘어가는 그 무렵 어느 순간에 뒤섞였고, 그 전통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유비로 칠십인 경 집회에서 30-36장의 본문 순서가 코텍스로 묶여지면서 뒤바뀌어 버렸다는 스위트의 주장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에 관해서 Swet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271-272를 보라.

### 3. 안디옥 본문

#### 3.1. 안디옥 본문의 전승과 순교자 루키안

제롬은 불가타 역대기 머리말에서 5세기 초반 자신에게 알려져 있던 칠십인 경의 역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지역은 칠십인 경에 있어서 헤시키우스의 권위를 높이 샀고,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안디옥까지의 지역에서는 순교자 루키안의 필사본들이 공인되었으며, 그 사이의 가운데 지역에서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오리겐에 의해 작성되고 유세비우스와 팜필루스가 출간한 책들을 읽었다. 온 세상에서 이 세 이본들이 경쟁하고 있다”(Hieron., *praef. in Paralipp.*).

제롬의 이 언급에서 3세기 후반의 칠십인 경 본문 전승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으니, 곧 순교자 루키안(250-312년)과 헤시키우스이다. 여기에서는 순교자 루키안과 그의 이름에 돌려진 칠십인 경 본문을 살펴본다. 루키안의 동시대인들이 전하는 다양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시리아어가 모국어였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던 뛰어난 학자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롬은 오리겐과 동등한 칠십인 경의 본문 형태로서 루키안을 언급한다. 그리하여 안디옥에서 활동했던 루키안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전승이나 개정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지난 백 오십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인 이른바 “루키안 개정본”이나 “안디옥 본문”에 대해 연구와 논쟁을 거듭해 왔다.

#### 3.2. 루키안/안디옥<sup>26)</sup> 본문의 연구사

26) 여기에서 “루키안”이라는 용어와 “안디옥”라는 용어를 함께 쓰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다. 연구사에서 볼 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본문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홈즈(Holmes)와 파슨스(Parsons)는 그때까지 알려졌던 300여개의 필사본들을 바탕으로 방대한 칠십인 경의 비평 편집본을 펴냈다(이하 줄여서, H.-P.).<sup>27)</sup> H.-P.는 분명히 이후 루키안/안디옥 본문의 연구에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비평본은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방대한 비평 각주에 이형에 따라 필사본들을 분류하여 일련번호로 매겨서, 다양한 본문의 형태들을 분석하기에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H.-P.가 출간된 후 약 한 세대 후인 18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체리아니(A.M. Ceriani)<sup>28)</sup>와 영국에서는 필드(F. Field)<sup>29)</sup>, 독일에서는 벨하우젠(J. Wellhausen)<sup>30)</sup>가 “루키안” 본문을 보존하는 필사본들을 거의 동시에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형태를 띠는 중세 필사본들(19, 82, 93, 108)의 본문 형태가 5세기 무렵에 안디옥에서 활동하였던 테오도렛이나 크리소스톰 등의 성경 인용문과 연관된다는 사실에서 “루키안” 본문이 확인되었다.

---

순교자 루키안에게 돌려졌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이 본문 형태에 대한 루키안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디옥 지방에 전승된 본문의 형태라는 의미로 안디옥 본문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사의 지식을 전제하기에 글쓴이는 80년대 이후의 연구사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루키안/안디옥 본문”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쓰며, 그때까지의 저술가들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루키안 본문”이라고 그대로 옮기겠다.

- 27) *Vetus Testamentum Graecum cum variis lectionibus*. Edidit Robertus Holmes, S.T.P., R.S.S., Aedis Christi Canonicus. Tomus primus. Oxonii: e typographeo Clarendoniano. MDCCXCVIII.
- 28)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1, 1965<sup>3)</sup>, 80, 각주 1에서 재인용.
- 29) F. Fiel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1 (Oxford, 1867; repr. Hildesheim: Georg Olms, 1964)=G.J. Norton trans., *Frederick Field's Prolegomena to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62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2005), 157-173을 보라.
- 30) J. Wellhausen,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71), 221-224.

원·칠십인 경 가설의 선두주자였던 라가르드는 원·칠십인 경 재구성의 그 첫 단계로 제롬이 말한 “루키안 개정본”을 편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sup>31)</sup> 그리고 1883년 8월 9일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자신이 편집한 구약 성경 루키안 본문을 출간하였다[*Librorum Veteris Testamenti canonicorum pars prior Graece* (Göttingen, 1883)]. 비록 이 편집본은 필사본의 이형들이 더러 정확하지 않게 반영되었고, 또 비평 각주가 없는 등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만, 라가르드의 원대한 계획은 그의 제자인 랄프스와 그 이후 계속 괴팅엔 칠십인 경 연구소의 후학들이 이어갔다.

랄프스도 “루키안” 본문 연구에 힘을 쏟아 부었다.<sup>32)</sup> 랄프스의 루키안 본문 연구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네 필사본들 외에(19, 108, 82, 93) 이들보다 앞선 10세기의 필사본인 127도 루키안 본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이다. 그리고 랄프스는 이른바 루키안 본문이 “원·루키안” 본문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랄프스는 “루키안”과 “원·루키안”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기란 어렵다는 사실도 고백하였다.<sup>33)</sup>

쿰란 본문과 안디옥 본문의 관계는 주로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초 이후로 쿰란 제4 동굴에서 사무엘서 히브리어 본문의 단편들[4QSam<sup>a</sup> (4Q51), 4QSam<sup>b</sup> (4Q52), 4QSam<sup>c</sup>, (4Q53)]을 발견하면서, 안디옥 본문은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되었다.<sup>34)</sup> 이 쿰란 본문은

31) P.A. de Lagarde, *Ankündigung einer neuen ausgabe der griechischen übersetzung des alten testaments* (Göttingen: Akademische Buchdruckerei zu Goettingen, 1882), 31.

32)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이다.

33)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293.

34) F. M. Cross, “A new Qumran Biblical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ptuagint,” *BASOR* 132 (1953), 15-26; F.M. Cross, “The Evolution of a Theory of local Texts,” R. Kraft, ed., 1972 *Proceedings IOSCS Pseudographa* (SCS 2; Missoula: SBL, 1972), 108-126; E.C. Ulrich, “4QSam<sup>c</sup>: A Fragmentary Manuscript of 2 Samuel 14-15 from the Scribe of the Serek Hay-yahad(1QS),” *BASOR* 235 (1979), 1-25; E. Ulrich, *The Qumran Text of Samuel and Josephus*, HSM 19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8); F.M. Cross, D.W.

흥미롭게도 자주 안디옥 본문을 지지하는데, 때로는 심지어 마소라 본문과 카이제 개정본에 맞서 안디옥 본문을 지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1992년과 1993년에 테일러는 사무엘기 상권의 안디옥 본문의 다수 본문 편집본(majority text)을 펴냈다.<sup>35)</sup> 한편 테일러가 본문 편집에 CATSS-데이터<sup>36)</sup>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집본을 만든 데 비해, 페르난데즈 마르코스는 직접 안디옥 본문의 필사본에서 완전히 새롭게 본문을 대조하였다. 페르난데즈 마르코스는 안디옥 본문의 편집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고대 라틴어 성경(Vetus Latina), 아르메니아어 역본, 테오도렛은 물론 콤란 본문까지 사용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의 안디옥 본문을 펴냈다.<sup>37)</sup> 페르난데즈 마르코스는 이 세 권의 편집본을 완성한 뒤, 역사서 안디옥 본문의 낱말 색인집도 펴냈다.<sup>38)</sup>

### 3.3. 안디옥 본문의 특징

연구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안디옥 본문의 기원은 분명히 원-칠십인

---

Parry, and R. J. Saleyal, eds., *Qumran Cave 4, XII. 1-2 Samuel*, DJD 17 (Oxford: Clarendon Press, 2005) 등 참조.

35) B.A. Taylor ed., *The Lucian Manuscripts of 1 Reigns - Volume 1. Majority Text Volume 2.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993).

36) CATSS(Computer Assisted Tools for Septuagint/Scriptural Study)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로버트 크래프트(Robert A. Kraft)를 중심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칠십인 경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칠십인 경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의 대조, 칠십인 경 본문 분석, 칠십인 경 필사본들의 유형.

37) N. Fernández Marcos and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38) N. Fernández Marcos, M. V. Spottorno, and J. M. Cañas Reillo, eds., *Índice Griego-Hebreo del Texto Antioqueno en los Libros Históricos. Volumen I: Índice general, Volumen II: Índice de nombres propios*, TECC 75 (Madrid: CSIC, 2005).

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무엘-열왕기서의 카이게 부분에서는 원 칠십인 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 안디옥 지역에서 주로 전승된 이 본문의 형태는, 주전 1세기 후반-주후 1세기 전반기에 카이게 개정본의 열풍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불어 닥치고 있을 때, 카이게 개정본의 경쟁 본문 구실을 하면서 한편으로 원 칠십인 경 보존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 안디옥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히브리어 본문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 뒤에 이 본문은 제롬의 증언과 같이 안디옥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지역 교회의 공인본 역할을 했던 듯하다. 그리고 주후 3세기 말에 순교자 루키안을 비롯한 안디옥 학파가 다시 한 번 개정해 오늘 우리들의 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기 하권 15장 1절부터 19장 9절까지의 본문에서 안디옥 본문의 연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그 특징을 가늠하고자 한다.

### 3.3.1. 테오도렛의 본문 인용과 일치하는 안디옥 본문

안디옥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테오도렛(393-460년)의 성경 인용은 대부분 “열왕기[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에 관한 질문들”(Questiones in libros Regnorum et Paralipomen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체리아니, 라가르드뿐만 아니라, 랄프스도 1904년에 테오도렛의 성경 인용 구절들과 라가르드의 “루키안 본문 편집본”(1883년)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이 본문이 안디옥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sup>39)</sup> 그리고 마침내 페르난데즈 마르코스는 자신의 안디옥 본문 편집본에서 테오도렛의 인용문이 발견되는 부분을 주 본문에 꺾쇠 괄호(「와」)로 표시했다. 보기로 사무엘하 15:19를 들겠다<표 7>.

먼저 바티칸 사본을 통해 전승된 본문은 중복(doublet; A-A')되어

39)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sup>2</sup>; org. ed. 1904), 16-46, 46.

있다. 중복된 본문(A')은 마소라 본문의 전통을 반영하는데, 바티칸 사본은 원-칠십인 경의 전통과 마소라 본문의 전통을 중복하여 필사했다. 반면에, 안디옥 본문과 테오도렛의 인용 본문은 몇몇 사소한 차이점을 빼면 어휘까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안디옥 본문의 증세 필사본들(19, 108, 82, 93, 127)에 전승된 본문의 형태는 테오도렛의 시대, 곧 주후 5세기경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 사무엘하 15:19 본문 비교

| 바티칸 사본(LXX-Ra)   |    | 「안디옥 본문」   | 테오도렛  |
|--|----|--|---|
| Τί<br>πορεύη<br>καὶ σὺ μεθ' ἡνῶν;<br>ἐπίστρεφε<br>καὶ οἴκει<br>μετὰ τοῦ βασιλέως,<br>ὅτι ξένος εἶ σὺ,                |    | Τί<br>πορεύη<br>καὶ σὺ μεθ' ἡνῶν;<br>'Ανάστρεφε<br>καὶ κάθισον<br>μετὰ τοῦ βασιλέως,<br>ὅτι ἀλλότριος σὺ,                | Τί γάρ, φησὶ,<br>πορεύη<br>σὺ μεθ' ἡνῶν;<br>'Ανάστρεφε<br>καὶ κάθισον<br>μετὰ τοῦ βασιλέως,<br>ὅτι ἀλλότριος σὺ,            |
| καὶ ὅτι μετώκηκας σὺ<br>ἐκ τοῦ τόπου σου·<br>εἰ ἐχθὲς παραγέγονας<br>καὶ σήμερον νικήρω σε<br>μεθ' ἡμῶν·             | A  | καὶ ὅτι μετώκηκας σὺ<br>ἐκ τοῦ τόπου σου·<br>εἰ ἐχθὲς παραγέγονας σὺ,<br>καὶ σήμερον νικήρω σε<br>τῷ παρεῖσθαι μεθ' ἡμῶν | καὶ ὅτι μετώκησας<br>ἐκ τοῦ τόπου σου·<br>εἰ ἐχθὲς παραγέγονας<br>σὺ,<br>καὶ σήμερον νικήρω σε<br>τῷ παρεῖσθαι μεθ'<br>ἡμῶν |
| καί γε μεταναστήσεις<br>τὸν τόπον σου·<br>ἐχθὲς ἢ ἐξέλευσίς σου<br>καὶ σήμερον μετακλήρωσε<br>μεθ' ἡμῶν τῷ παρεῖσθαι | A' | (-)  | (-)   |
| καὶ ἐγὼ πορεύσομαι<br>οὐδ' ἂν ἐγὼ πορευθῶ.   |    | ἐγὼ δὲ παρέσομαι<br>οὐδ' ἂν παρέωμαι.  | ἐγὼ πορεύσομαι<br>οὐδ' ἂν πορεύωμαι.  |

3.3.2.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Jos. Ant.)와 일치하는 안디옥 본문

메쯔<sup>40)</sup>와 올리히<sup>41)</sup>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페르난데즈 마르코스는 안디옥 본문을 편집하면서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의 본문 증거들을 제2비평 각주에 실어 놓았다. 사무엘하 15:7의 보기를 들어 보자<표 8>.

<표 8> 사무엘하 15:7 본문 비교

|                        |  |
|------------------------|--|
| 마소라<br>본문              | וַיְהִי מִגֵּן אַרְבָּעִים שָׁנָה וַיֹּאמֶר אֲבִשָׁבֶל אֶל־הַמֶּלֶךְ<br>אֶל־כָּכָה נָתַן וַאֲשַׁלֵּם אֶת־נַדְרֵי אֲשֶׁר־נָדַרְתִּי לַיהוָה בְּחַבְרֹן:   |
| 카이게<br>개정본<br>(LXX-Ra) | καὶ ἐγένετο ἀπὸ τέλους τεσσαράκοντα ἐτῶν καὶ εἶπεν Ἀβεσσαλωμ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αὐτοῦ πορεύσομαι ὃη καὶ ἀποτείσω τὰς εὐχάς μου ἅς ἠξάμην τῷ κυρίῳ ἐν Χεβρων   |
| 안디옥<br>본문              | καὶ ἐγένετο μετὰ τέσσαρα ετη καὶ εἶπεν Ἀβεσσαλωμ πρὸς τὸν βασιλέα λέγων πορεύσομαι ὃη καὶ ἀποδώσω τὰς εὐχάς μου ἅς ἠξάμην τῷ κυρίῳ ἐν Χεβρων   |
| Jos. Ant.              | τούτοις δημαγωγῶν τὸ πλῆθος ὡς βεβαίαν ἤδη τὴν παρὰ τῶν ὄχλων εὐνοίαν ἐνόμιζε μετὰ δὲ τὴν τοῦ πατρὸς αὐτοῦ καταλλαγὴν τεσσάρων ἐτῶν ἤδη διεληλυθότων ἐδεῖτο προσελθὼν εἰς Γιβρῶνα συγχωρῆσαι πορευθέντι θυσίαν ἀποδοῦναι τῷ θεῷ φεύγοντα γὰρ αὐτὸν εὔξασθαι τοῦ δὲ Δαυίδου τὴν ἀξίωσιν ἐφέντος πορεύεται καὶ πολὺς |

위의 본문은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배 다른 형 암논을 죽인 뒤 다윗에게 다시 나서는 대목인데, 마소라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은 이때를 ‘사십 년’ 뒤라고 소개한다. 사실 이 시간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안디옥 본문은 좀 더 현실적으로 ‘사 년’이라 하였다. 물론 이 본문을 전하는 필사본들이 중세의 것이

40) A. Mez, *Die Bibel des Josephus-untersucht für Buch V-VII der Archäologie* (Basel: Jaeger & Kobel, 1895).

41) 위의 각주 35를 보라.

니 이것이 수궁하기 어려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후대에 고친 이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전통이 요세푸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 년’의 전통이 이미 주후 1세기 말에 있었고, 이 전통은 바로 안디옥 본문(과 그 대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안디옥 본문의 히브리어 대본은 “ענהם ארבעם”로 재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인 “멤”(מ)은 복수형의 어미가 아니라 복서 셈어, 특히 우가릿어에서 종종 쓰였으며,<sup>42)</sup> 구약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sup>43)</sup> 이른바 “전접어”(encliticum)로 볼 수 있다.

### 3.3.3. 콤란 사무엘 본문과 일치하는 안디옥 본문

앞서 콤란 사무엘 본문이 종종 안디옥 본문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사무엘하 15:1-19:9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낱말 단위의 이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Ant=안디옥 본문; KR=카이게 개정본; MT=마소라 본문).<sup>44)</sup>

#### (1) 4QSam<sup>a</sup>와 안디옥 본문 및 다른 본문과의 관계-①(4QSam<sup>a</sup>=Ant)

42) 우가릿어에서의 전접어 “멤”(מ)에 대해서는, J. Tropper, *Ugaritische Grammatik* (Münster: Ugarit-Verlag, 2000), 825-832를 참조하라.

43) 이에 대한 연구로는 H. D. Hummel,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9 (1957), 91-103와 G. Sauer, “Ugaristik und die Psalmenforschung, II,” K. Bergerhof, ed., *Ugarit-Forschung.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die Altertumskunde Syrien-Palästinas*, 1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357-386, 특히 382-383을 보라. 구약 성경에서는 가령, 이사야 5:23의 마소라 본문은 복수형으로 מִיָּקִים이다. 그러나 칠십인 경은 이 낱말을 단수형인 τοῦ δικαίου로 옮긴다. 이 번역의 히브리어 대본은 מִיָּקִים로 추정할 수 있다. 전접어 “멤”(מ)이 쓰인 이 단수 형태는 이 구절의 평행구조와 잘 어울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מִיָּקִים와도 잘 어울린다.

44) 구체적인 본문의 예는,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과 김정훈, 『칠십인 경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연구 입문』을 보라.

$\neq(MT=KR)$ : 15:2( $\times 3$ ); 15:31; 17:3; 18,3( $\times 2$ ), 9, 11; ②  
 $(4QSam^a=MT=Ant)\neq KR$ : 15:7; 18:3, 6; ③ $(4QSam^a=Ant=KR)\neq MT$  :  
 15:2( $\times 2$ ); 18:9; 19,7, 8( $\times 2$ ); ④ $(4QSam^a=MT=KR)\neq Ant$  : 16:18; 17:23;  
 19,7( $\times 2$ ), 8; ⑤ $(4QSam^a=MT)\neq(KR=Ant)$ : 19,8.

(2)  $4QSam^c$ 와 안디옥 본문과 다른 본문의 관계-① $(4QSam^c=Ant)\neq(MT=KR)$ :15:2,12( $\times 2$ ); ② $(4QSam^c=MT=Ant)\neq KR$ :15:12; ③  
 $(4QSam^c=MT=KR)\neq Ant$ :15:3, 4; ④  $4QSam^c\neq(MT=KR=Ant)$ :  
 15:1( $\times 2$ ), 2, 4, 10, 12, 14.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콤란 사무엘기의 본문은 여러 가지 본문 형태들이 한데 섞여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안디옥 본문의 고유한 이형이 콤란 사무엘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처럼 안티오키아 본문의 고유한 전통도 콤란 사무엘서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표본 조사만으로도 안티오키아 본문의 전통이 적어도 콤란 시대, 곧 주전 1세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4. 맺는 말

우리는 이상에서 사무엘-열왕기서의 칠십인 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본문 형태들, 곧 카이게 개정본과 안디옥 본문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역사는 칠십인 경 전체의 본문 역사와 상관이 있기에 전자의 역사를 재구성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전 3세기경에 번역되었을 사무엘-열왕기서의 원-칠십인 경은 마소라 본문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히브리

어 대본을 전제한다. 원-칠십인 경의 전통은 사무엘-열왕기서에서 대부분 안디옥 본문으로 이어져 순교자 루키안의 이름 아래 안디옥 지방의 공인본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주전 2세기부터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유대주의 성경 해석의 영향을 받은 원어 중심의 전면적인 개정이 일어났으니 곧 카이게 개정본이다. 이 원어 중심 헬라이어 구약 성경의 전통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더 심화되어 급기야 주후 2세기에는 아퀼라의 번역에서 그 극단에 이르는데, 아퀼라의 경우 히브리어 원문을 알지 못한다면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일의 극단적인 직역을 고수하였다.

사무엘-열왕기서에서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은 주후 3세기 초반 오리겐이 헥사플라라는 대작을 내놓기 전까지<sup>45)</sup> 공존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카이게 개정본은 원-칠십인 경과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sup>46)</sup> 서로 뒤섞인 채 전승되었다. 이렇게 뒤섞인 본문의 형태는 그 후 대부분의 대문자 사본들(B, A, M, V 등)과 소문자 사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이어졌다. 한편 안디옥 본문은 독자적인 전승 과정을 거쳐 오늘날 9-12 세기의 필사본에 그 형태가 남아 있다.

히브리어 본문의 경우 콤파본문이 필사되던 시절까지, 곧 칠십인 경이 개정되던 때에는 다양한 본문 형태들이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의 본문 형태에 반영된 한 본문이 주후 2세기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정되어 마소라 학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큰 변화 없이 전승되었다.

따라서 주전 2세기-주후1세기, 그러니까 칠십인 경이 개정의 과정을 겪던 때는 칠십인 경의 번역은 물론 히브리어 본문 역시 유동적인 상태로 다양한 본문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결국 칠십인 경 본문이 개정되던 때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본문의 형태들에서 우리는 당대 구약 성경을 읽던 이들의 성경 이해와 발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45) 사무엘-열왕기서의 헥사플라 단편 본문들은 벌써 혼합 본문 양상을 보여준다.

46) 글쓴이의 견해는 위의 각주 25를 보라.

이로써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주요어>

사무엘-열왕기서, 본문 역사, 칠십인 경, 안디옥 본문, 카이게 개정본

<Key Words>

Samuel-Kings, Textual history, Septuagint, Antiochene Text, Kaige-Recension

---

47) 이 당시에는 정경의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필사자의 의도적인 수정 및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파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인 페샤립이다. 이들은 그들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성경 해석을 위해 유동적인 성경의 본문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글쓴이의 연구로는 Kim, Jong-Hoon,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을 보라.

### 참고문헌

- 김정훈, 『칠십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 입문』,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 캐런 줍스, 모세 실바,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 김구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퀸터 스태뎀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딸, 2008.
- Avalos, H., “Deuro/deute and the Imperatives of  $\gamma\lambda\eta$ -New Criteria for the ‘Kaige’ Recension of Reigns,” *EstBib* 47 (1989), 165-176.
- Barthélemy, D., “Redécouverte d'un Chaînon Manquant de L'Histoire de la Septante,” *RB* 60 (1953), 18-29.
- Barthélemy, D.,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 Cross, F.M., “A new Qumran Biblical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ptuagint,” *BASOR* 132 (1953), 15-26.
- Cross, F.M., “The Evolution of a Theory of Local Texts,” R. Kraft, ed., *Proceedings IOSCS Pseudographa*, SCS 2, Missoula: SBL, 1972, 108-126.
- Cross, F. M., D.W. Parry, and R. J. Saley, eds., *Qumran Cave 4, XII. 1-2 Samuel*, DJD 17, Oxford: Clarendon Press, 2005.
- de Lagarde, P. A., *Ankündigung einer neuen ausgabe der griechischen übersetzung des alten testaments*, Göttingen: Akademische Buchdruckerei zu Goettingen, 1882.
- de Lagarde, P.A., *Librorum Veteris Testamenti canonicorum pars prior Graece*, Göttingen: A. Hoyer, 1883.
- Dines, J.M., *The Septuagint*, London: T&T Clark, 2004.
- Dogniez, C., *Bibliography of the Septuagint. Bibliographie de la Septante <1970-1993>*, VTS 60, Leiden: Brill, 1995.
- Fernández Marcos and N.,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 Fernández Marcos, N., M.V. Spottorno, and J. M. Cañas Reillo, eds., *Índice Griego-Hebreo del Texto Antioqueno en los Libros Históricos*, I: Índice general, II: Índice de nombres propios., TECC 75, Madrid: CSIC, 2005.

- Fernández Marcos, N., *The septuagint in Context: Introduction to the Greek Version of the Bible*, W. G. E. Watson, trans., Leiden: Brill, 2000.
- Field, F.,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1*, Oxford, 1867; repr. Hildesheim: Georg Olms, 1964.
- Grindel, J.A.,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Kaige Recension:  $\pi\alpha\upsilon/\nu\iota\kappa\omicron\varsigma$ ,” *CBQ* 31 (1969), 499-513.
- Hummel, H.D., “Enclitic Mem in early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9 (1957), 91-103.
- Jellicoe, S., “Some Reflections on the Kaige-Recension,” *VT* 23 (1973), 362-365.
- Jellicoe, S.,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1968; repr. Wino Lake: Eisenbrauns, 1993.
- Jong-Hoon, Kim,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 Jong-Hoon, Kim, “Zur Textgeschichte von Sam-Kön anhand 2.Sam 15,1-19,9,” M. Karrer and W. Kraus, eds.,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und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353-368.
- Jong-Hoon,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atz, P., “Frühe hebraisierende Rezensionen der LXX,” *ZAW* 69 (1957), 77-84.
- Kraft, R.A., “Reassessing the Impact of Barthélemy’s Devanciers, Forty Years Later,” *BIOSCS* 37 (2004), 1-28.
- Kreuzer, S., “Die Septuaginta im Kontext alexandrinischer Kultur und Bildung,” H.-J. Fabry and D. Böhler, 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Bd. 3: Studien zur Theologie, Anthropologie, Ekklesiologie, Eschatologie und Liturgie der Griechischen Bibel*, BWANT 174, Stuttgart: Kohlhammer, 2007, 28-56.
- Kreuzer, S., “From Old Greek’ to the recensions. Who and what caused the

- change of the Hebrew reference-text of the Septuagint?" W. Kraus and R. G. Wooden, eds., *Septuagint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SBLSCS 53, Atlanta: SBL, 2006, 225-237.
- Kreuzer, S.,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Wie kam es zur Vorherrschaft des Masoretischen Textes?" A. Vonach and G. Fischer, 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Festschrift für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17-129.
- Kühner, R. and Gerth, B.,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I Elementar-und Formlehre*, Hannover, 1890-1892, II Satzlehre, Hannover: Hansche Buchhandlung, 1898/1904.
- Norton, G.J., trans., *Frederick Field's Prolegomena to Origenis Hexaplorum quae sup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62,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2005.
- O'Connell, K.G., "Greek Version(Minor)," *IDBS* (1962), 377-381.
- Rahlfs, A., *Septuaginta-Studien I*, 190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sup>2</sup>.
- Rahlfs, A., *Septuaginta-Studien III*, 19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sup>2</sup>.
- Sauer, G., "Ugaristik und die Psalmenforschung, II," K. Bergerhof, ed., *Ugarit-Forschung.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die Altertumskunde Syrien-Palästinas*, 1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357-386.
- Shenkel, J. D., *Chronology and Resensational Development in the Greek Text of King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Swete, H.B.,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1900, 1914<sup>2</sup>; repr. New York: Handrickson Publishers, 1989.
- Tropper, J., *Ugaritische Grammatik*, Münster: Ugarit-Verlag, 2000.
- Wevers, J. W., "Barthélemy and Proto-Septuagint Studies," *BIOCS* 21 (1988), 23-34.

<초록>

##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역사

김정훈

(부산 장신 대학교 교수, 구약학)

주요 대문자 필사본들(B, A, M, V)에 보존된 칠십인 경 사무엘-열왕기서에는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의 본문 형태가 있다. ① 사무엘상-사무엘하 11:1, 열왕기상 2:12-21:43, ② 사무엘하 11:2-열왕기상 2:11, 열왕기상 22:1-열왕기하. 첫 번째 본문 형태는 원-칠십인 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형태는 주전 1-2세기경에 행해진 유대주의 개정으로 원어 중심의 직역으로 여겨지는데, 그 개정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본 따 카이게 개정본이라 일컫는다. 즉, 히브리어의 כָּ/כִּי를 일관되게 καὶ/ε로 옮기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카이게 부분에서는 이른바 안디옥 본문이 원-칠십인 경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록 이 본문 형태가 중세 소문자 필사본들(19, 108, 82, 93, 127)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안디옥 교부들의 성경 인용, 고대 라틴어 번역, 요세푸스와 쿠파란 성경 본문(4QSam<sup>a</sup>, 4QSam<sup>s</sup>)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본문 증거의 후대성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본문이 본문 비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이 두 본문 형태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원-칠십인 경에서 주전 1세기까지 이르는 개정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Abstract>

## The Textual Forms and its History of the Greek Samuel-Kings

Prof.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Greek Samuel and Kings preserved in the main uncial manuscripts(B, A, M, V) have two distinctive textual forms section by section, namely ① 1S-2S11:1; 1K2:12-21:43, ② 2S11:2-1K2:11; 1K22:1-2K. The former reflects the Old-Greek, and the latter is identified as a Jewish recension, a literal rendering oriented to the source language(the Hebrew) and labeled as the Kaige-recension according to one of its recensional characteristics, that is to say, the exclusive rendering kai.ge of the Hebrew קג/קג. In the Kaige-sections, then, reflects the Antiochene Text the Old Greek. Although this textual forms is mainly identified from the medieval cursive manuscripts(19 108, 82, 93, 127), but it is supported from the Antiochene Fathers, Vetus Latina, Josephus, finally the Quram Texts(4QSam<sup>a</sup>, 4QSam<sup>c</sup>). So the Antiochene Text is in spite of the late date of its direct textual witnesses in the Textual criticism very valuable. This Study will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extual forms and then reconstruct a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Samuel-Kings from the Old Greek to the recensional activities up to the 1nd century BCE.